

보도 일시	2022. 5. 9.(월) 16:00	배포 일시	2022. 5. 9.(월) 16:00
담당 부서	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 김환승 (043-901-7030)
		담당자	주무관 손진영 (043-901-7036)

2021년 충청지역의 날씨특성을 한 눈에

- 「2021년 충청북도 기후자료집」 발간

- 청주기상지청(지청장 김동진)은 2021년 충청북도의 계절별·지역별 기후특성을 담은 「2021년 충청북도 기후자료집」을 발간하였다.
- 충청지역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의 기후특성을 기온·강수량·바람·일조 등 기상요소별로 상세히 분석하였다.
 - 2021년 충북은 연평균기온이 12.5℃로 평년보다 0.9℃ 높아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으며, 3월 평균기온은 8.0℃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아 봄꽃이 빠르게 개화하였다.
 - 역대 세 번째로 짧은 장마(17일)와 역대 가장 적은 겨울철 강수량 등이 나타났다.
- 이번 기후자료집은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에 배부될 예정이며, 청주기상지청 홈페이지(cheongju.kma.go.kr)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- 청주기상지청(지청장 김동진)은 “이번 기후자료집이 충청북도의 기후를 이해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재해를 줄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랍니다.”라고 밝혔다.

- (봄) **변덕스런 기온과 3일에 한 번 비 온 봄철**
 - 3월 이상 고온 지속, 4월 한파와 초여름 날씨, 5월 잦은 비
 - 높은 3월 기온 영향으로 청주 벚꽃 개화일(3월24일, 평년 4월 6일)이 관측 이래 가장 빨라
 - 3월과 달리 4~5월에는 찬 공기의 주기적 남하와 공기 흐름 정체 때문

- (여름) **짧은 장마와 늦여름 잦은 비**
 - 평년보다 2주 짧았던 장마,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 내리는 경향 이어져
 - 일찍 장마가 종료된 후 7월 중순부터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강한 햇볕 영향으로 7월 충북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음

- (가을) **따뜻했던 가운데, 일시적 한파가 내습한 가을**
 - 아열대고기압의 이례적 발달로 가을철 전반 평균기온 역대 최고
 - 10월 중순 찬 대륙고기압의 일시적 확장으로 10월 기온 변동 폭 역대 최고

- (겨울) **강수량 역대 가장 적었던 겨울**
 - 겨울철 강수량 11.9mm(평년대비 15.3%)로 매우 건조했던 겨울
 - 평균기온은 -1.4℃로 평년(-1.3℃)로 평년과 비슷

- (장마철) **역대 세 번째로 짧았던 장마**
 -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서쪽 확장과 정체전선 북상이 지연되면서 장마철이 늦게 시작된 가운데, 7월 중순부터 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장마철이 평년보다 일찍 종료
 - 7월 3일 시작한 후 7월 19일에 종료되면서, 충북지방 장마기간(17일, 평년 31.5일)이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짧았음

- (태풍) **3개의 영향태풍**
 - 총 22개(평년 25.1개)가 발생하여, 이 중 3개(제9호 루핏(8.4.~9.), 제12호 오마이스(8.20.~24.), 제14호 찬투(9.7.~18.))가 8~9월 우리나라에 영향
 - 제14호 태풍 '찬투'의 영향으로 9월 16~17일 충북 지역에는 10~50mm의 비가 내렸음